01 다음 중 제시된 단어의 표준 발음과 로마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① 선릉[선능] – Seonneung • 17. 서울특별시 9급
②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③ 낙동강[낙똥강] – Nakddonggang
④ 집현전[지편전] – Jipyeonjeon

0 문법 - 현대문법 - 로마자 표기

② ㄴ 첨가와 비음화가 적용되어 [항녀울]로 발음하므로, 옳게 표기하였다.
① [설릉]으로 발음하므로, 'Seolleung'로 표기해야 한다.
③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낙동강'을 'Nakdonggang'로 표기해야 한다.
④ 자음 축약은 체언에 적용하지 않으므로 '집현전'을 'Jiphyeonjeon'으로 표기해야 한다.

답 ②

02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① 방학 동안 몸이 부는 바람에 작년에 산 옷이 맞지 않았다. • 17. 서울특별시 9급
②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③ 오늘 뒤풀이는 길 건너에 있는 맥줏집에서 하도록 하겠 습니다.
④ 한문을 한글로 풀이한 이 책은 중세 국어의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0 문법 - 국어생활 - 맞춤법

③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쓸 수 없으므로, '뒤풀이'가 옳게 쓰였으며, 한자어 '맥주'와 우리말 '집'이 결합할 때에는 사이시옷을 넣기 때문에 '맥줏집'이 옳게 쓰였다.
① '붇(다)+는'으로 분석되므로, '붇는'으로 표기해야 옳다.
② '무성음' 뒤에서는 '하'가 완전히 줄기 때문에, '넉넉+하+지'를 줄인말은 '넉넉지'가 된다.
④ '지위, 신분, 자격, 위치'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부사격조사 '(으)로서'를 쓴다.

답 ③

03 다음 중 국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7. 서울특별시 9급

① 띄어쓰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규범화되었다.
② 주격 조사 가는 고대 국어에서부터 등장한다.
③ 'ㆍ'는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
④ ㅸ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ㅃ으로 변하였다.

0 문법 - 고전문법

① 띄어쓰기를 처음 주장한 것은 '독립신문(1896)'이었고, 규범화한 것은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년)에서이다.
② 주격조사 '가'는 임진왜란 이후(17세기) 등장하였다.
③ 'ㆍ'는 1933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다.
④ 'ㅸ'은 세조(15세기 중반) 이후, '오/우'로 바뀌거나 'ㅇ'으로 바뀌었다.

답 ①

04 다음 문장들을 두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맥상 가장 먼저 와야 할 문장은? • 17. 서울특별시 9급

㉠ 신라의 진평왕 때 눌최는 백제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병졸들에게, 봄날 온화한 기운에는 초목이 모두 번성하지만 겨울의 추위가 닥쳐오면 소나무와 잣나무는 늦도록 잎이 지지 않는다.
㉡ 이제 외로운 성은 원군도 없고 날로 더욱 위태로우니, 이것은 진실로 지사 의부가 절개를 다하고 이름을 드러낼 때 이다. 라고 훈시하였으며 분전하다가 죽었다.
㉢ 선비 정신은 의리 정신으로 표현되는 데서 그 강인성이 드러난다.
㉣ 죽죽(竹竹)도 대야성에서 백제 군사에 의하여 성이 함락될 때까지 항전하다가 항복을 권유받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죽죽이라 이름 지어 준 것은 내가 추운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으며 부러질지언정 굽힐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아서 항복할 수 있겠는가. 라고 결의를 밝혔다.

① ㉠ ② ㉡
③ ㉢ ④ ㉣

0 비문학 - 집필과 퇴고 - 단락의 일관성

두괄식 구성에서는 주제문이 가장 먼저 와야 한다.
㉠~㉣ 중, 주제문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것은 ㉢이다.
이에 비해 ㉠ ㉡ ㉣은 모두 ㉢의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므로 주제에 대한 예시의 성격을 띤다.

답 ③

05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7. 서울특별시 9급

>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 별 하나에 추억과 / 별 하나에 사랑과 / 별 하나에 쓸쓸함과 / 별 하나에 동경과 / 별 하나에 시와 /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① 화자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내면을 고백 하고 있다.
② 화자의 내면과 갈등관계에 있는 현실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별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를 나타낸다.
④ 별은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바라는 화자의 현실적 욕망을 상징한다.

0 문학 - 현대문학 - 시

③ '별'을 통해 떠올린 대상들은 화자에게 그리움의 대상이자, 동경의 대상이다. 따라서 '별'은 화자에게 그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별'은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라고 할 수 있다.
① 이 작품에서 청자는 특별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 화자가 독백적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이 작품은 자연적 대상인 별들과 그리움의 대상인 존재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열거하는 방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 비판적 시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④ '별'은 화자에게 그리움과 동경의 대상이다.

답 ③

06 다음 중 반의 관계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17. 서울특별시 9급

① 살다 – 죽다 ② 높다 – 낮다
③ 늙다 – 젊다 ④ 뜨겁다 – 차갑다

0 비문학 - 비문학의 여러 이론 - 문맥적 의미 - 반의어

① 모두 부정하면 모순이 발생하는 양분 대립의 사례이다.
②③④ 모두 부정해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 즉 중간항이 존재하는 극성 대립의 사례이다.

답 ①

07 다음에 제시된 단어들과 단어 형성 원리가 같은 것은? • 17. 서울특별시 9급

> 개살구, 헛웃음, 낚시질, 지우개

① 건어물(乾魚物) ② 금지곡(禁止曲)
③ 한자음(漢字音) ④ 핵폭발(核爆發)

0 문법 - 현대문법 - 단어

'개살구, 헛웃음, 낚시질, 지우개'는 모두 파생어이다.
① '건어물'의 '물'은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②③④는 모두 합성어이다.

답 ①

08 다음 중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가 쓰인 것은?

• 17. 서울특별시 9급

① 님금 ② 늣거ᅀᅡ
③ 바ᄋᆞᆯ ④ 가ᄇᆡ야ᄇᆞᆫ

0 문법 - 고전문법 - 제자원리

④의 '붇'의 'ㅸ'은 글자의 운용법 중, 연서법에 따라 만들어진 글자이다.
17초성에 포함되는 글자는 다음과 같다.
㉠ 기본자: ㄱ, ㄴ, ㅁ, ㅅ, ㅇ(5자)
㉡ 가획자: ㅋ, ㄷ/ㅌ, ㅂ/ㅍ, ㅈ/ㅊ, ㆆ/ㅎ(9자)
㉢ 이체자: ㅇ, ㄹ, ㅿ(3자)

답 ④

09 다음 예문과 같은 유형의 논리적 오류가 나타난 것은? • 17. 서울특별시 9급

> 이 식당은 요즘 SNS에서 굉장히 뜨고 있어.
> 그러니까 엄청 맛있을 거야.

① 이 식당 음식을 꼭 먹어보도록 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집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맛이 괜찮은가 봐.
② 누구도 이 식당이 맛없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집이란 소리지.
③ 여기는 유명한 개그맨이 맛있다고 한 식당이니까 당연히 맛있겠지. 그러니까 꼭 여기서 먹어야 해.
④ 이번에는 이 식당에서 밥을 먹자. 내가 얼마나 여기서 먹어 보고 싶었는지 몰라. 꼭 한번 오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어.

0 문법 - 국어생활 - 오류의 유형

주어진 예문은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이다.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는 '여러 사람'의 견해에 기대어 자기 논지를 정당화하는 오류이다.
㉠ 전제: SNS에서 (여러 사람이) 맛있다고 함
㉡ 결론: 그러므로 맛있을 것임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①이다.
㉠ 전제: 여러 사람이 맛있다고 함
㉡ 결론: 그러므로 맛있을 것임
②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③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④ 사적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답 ①

10 다음 글에 나타난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7. 서울특별시 9급

>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 우리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애하고 신용을 하니까 인제 한 십 년만 더 있으면 한밑천 들여서 따로 장사를 시켜 줄 그런 눈치거든요.
>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 년 동안 예순 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십만 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꾼이니, 뭐 떵떵거리고 살 게 아니라구요?
>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얌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 나는 죄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 구식 여자는 얌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교제하는 데 안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나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쓰고, 도무지 그래서 죄선 여자는 신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바리여요.
> 내지 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개 일자로 이쁘겠다, 얌전 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좀이나 좋아!
>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 내지인 학교라야지 죄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 놓기나 꼭 알맞지요.
> 그리고 나도 죄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 이렇게 다 생활법식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 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 *다이쇼: 주인 / *죄선: 조선 / *내지인: 일본인

① 서술자가 내지인을 비판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② 서술자가 전지적 존재로서 인물과 사건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③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의 내면을 추리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서,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0 문학 - 현대문학 - 소설

이 글은 시작 부분에 나와 있듯이 서술자의 이상과 계획을 밝히고 있는 글이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다이쇼의 신용을 받아 장사 밑천을 받아서 10만 원을 모은다.
㉡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고,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모든 생활법식을 내지인 식으로 바꾼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이 글의 서술자는 조선인이지만 조선 법식을 버리고 완전히 일본 법식에 따라서 사는 삶을 꿈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러한 서술자의 생각과 태도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① 서술자는 내지인을 동경하고 있다.
②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③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답 ④

11 다음의 속담과 가장 관련이 깊은 말은? • 17. 서울특별시 9급

㉠ 가물에 도랑 친다	㉡ 까마귀 미역 감듯

① 헛수고 ② 분주함
③ 성급함 ④ 뒷고생

0 문법 - 국어생활 - 속담

㉠ 한창 가물 때 애쓰며 도랑을 치느라고 분주하게 군다는 뜻으로, 아무 보람도 없는 헛된 일을 하느라고 부산스레 굶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까마귀는 미역을 감아도 그냥 검다는 데서, 일한 자취나 보람이 드러나지 않음. ⓑ 일을 세밀하지 처리하지 못하고 거친 것

답 ①

12 다음 중 한자어와 독음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17. 서울특별시 9급

① 陶冶 – 도치 ② 改悛 – 개전
③ 殺到 – 살도 ④ 汨沒 – 일몰

0 한문 - 한자어 - 한자어 읽기

② 고칠(개), 뉘우칠(전), 즉 '개전'으로 읽는 것이 옳다.
① 도야, ③ 쇄도, ④ 골몰

답 ②

13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17. 서울특별시 9급

> ㉠ 창 밖은 가을이다. 남쪽으로 난 창으로 햇빛은 하루하루 깊이 안을 넘본다. 창가에 놓인 우단 의자는 부드러운 잿빛이다. 그러나 손으로 ㉡ 우단천을 결과 반대 방향으로 쓸면 슬쩍 녹듯빛이 돈다. 처음엔 짙은 쑥색이었다. 그 의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 30년 동안을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하는 일이라곤 햇볕에 자신의 몸을 잿빛으로 바래는 ㉣ 일 밖에 없다.

① ㉠ ② ㉡
③ ㉢ ④ ㉣

0 문법 - 국어생활 - 띄어쓰기

㉢ '30∨년∨동안'이 원칙이고, '30년∨동안'을 허용한다.
㉠ '창밖'은 합성어이므로 붙여 쓴다.
㉡ '우단+천'은 합성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참 우단(羽緞): 벨벳(거죽에 곱고 짧은 털이 촘촘히 돋게 짠 비단)
㉣ 체언 뒤의 '밖에'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답 ③

14 다음의 ㉠~㉣ 중 주어가 다른 하나는? • 17. 서울특별시 9급

> 진찰의 첫 단계로 임상심리 검사를 시작해 보니 환자의 증세가 참으로 특이하더군요. 도대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진술 거부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터무니없이 불안해하거나 자기 생각을 거짓말로 슬슬 ㉠ 속여넘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게 틀림없다고 고집이지 뭡니까. 아니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해 하는 것도 모두 그렇게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을 확인 시키려는 노력에서 ㉡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물론 나중까지 환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받아 놓지 않은 건 아니었

지요. 한데 나중에 보호자 ㉢ 연락을 취해 보니 그것도 모두가 거짓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주소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다시 진짜를 대보라고 했지만 어디 대답이 쉽습니까. 게다가 이 환자는 소지품 중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만한 것을 ㉣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

-이청준, '소문의 벽'

① ㉠ ② ㉡
③ ㉢ ④ ㉣

0 문학 - 현대문학 - 소설 - 대상 구별하기

서술어 자릿수를 이용하여 '주어'를 찾아보면 된다.
㉢의 주체: 우리
㉠㉡㉣의 주체: 환자

답 ③

15 다음 예문에 제시된 시사(詩史)의 전개가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은?

• 17. 서울특별시 9급

㉠ 농민의 애환을 다룬 신경림의 농무 를 비롯하여, 고은이나 김지하 등 참여 시인들의 작품은 현실에 저항하는 문학의 실천성을 보여 주었다.
㉡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 이 출간되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떠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APF)이 결성되어 리얼리즘 계열의 시가 창작되기도 했다.
㉢ 전쟁에 참여한 시인들은 선전 선동시 등을 창작하기도 했으나 구상의 초토의 시처럼 황폐화된 국토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 남긴 비극을 그려내는 작품들이 나타났다.
㉣ 모더니즘 시운동을 선도한 시인들이 도시적 감수성을 세련된 기교로 노래했다. 김기림은 장시 기상도 를 통해 현대 문명을 비판했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0 문학 - 현대문학 - 현대문학사

㉠ 신경림의 농무: 1975년
㉡ 님의 침묵: 1926년
KAPF 결성: 1925년
㉢ 구상의 초토의 시: 1956년
㉣ 모더니즘: 30년대
김기림의 기상도: 1936년
따라서 제시한 항목을 시대순으로 배열하면 '㉡ - ㉣ - ㉢ - ㉠'이 된다.[

답 ②

16 다음 중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17. 서울특별시 9급

① 가닐대다 –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② 굼적대다 –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
③ 꼬약대다 –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다.
④ 끌끌대다 – 마음에 마땅찮아 혀를 차는 소리를 자꾸 내다.

0 문법 - 국어생활 - 우리말

②의 '굼적대다'는 몸이 둔하고 느리게 자꾸 움직인다는 뜻이다. 따라서 뜻풀이가 옳지 못하다.
① 가닐대다: ㉠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 보기에 매우 위태롭거나 치사하고 더러워 마음에 자린 느낌이 자꾸 들다.
③ 꼬약대다: ㉠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다. ㉡ 좁은 데로 많은 사람이나 사물이 잇따라 몰려가거나 들어오다. ㉢ 연기나 김 따위가 계속 나오거나 생기다.
④ 끌끌대다: ㉠ 트림하는 소리가 자꾸 나다. ㉡ 마음에 마땅찮아 혀를 차는 소리를 자꾸 내다.

답 ②

17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한자어로 적합한 것은?

• 17. 서울특별시 9급

토의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의 사고 과정이다.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의 선택에 필요한 판단 준거를 토대로 대안을 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① 토의 – 討義 ② 사고 – 思考
③ 선택 – 先擇 ④ 준거 – 準擧

0 한문 - 한자어 - 한자어 쓰기

① 토의→討議: 칠(토), 의논할(의)
③ 선택→選擇: 가릴(선), 가릴(택)
④ 준거→準據: 기준(준), 의거할(거)

답 ②

18 음운 현상은 변동의 양상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음운 현상의 유형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하나는?

• 17. 서울특별시 9급

㉠ 대치 –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탈락 – 한 음소가 없어지는 음운 현상
㉢ 첨가 – 없던 음소가 새로 끼어드는 음운 현상
㉣ 축약 – 두 음소가 합쳐져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도치 – 두 음소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음운 현상

① 국+만→[궁만] ② 물+난리→[물랄리]
③ 입+고→[입꼬] ④ 한+여름→[한녀름]

0 문법 - 현대문법 - 음운 - 음운현상

① 비음화: 대치
② 설측음화: 대치
③ 된소리되기: 대치
④ ㄴ 첨가: 첨가
따라서 ④가 나머지 셋과 구별되는 현상이다.

답 ④

19 문맥상 다음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7. 서울특별시 9급

인간의 역사가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자연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반복을 반복할 뿐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수고 말미에,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 라고 적은 바 있다. 또한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자연의 내부에서도 대립과 통일은 존재한다. (㉠) 마르크스의 진의(眞意) 또한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양과 일여(一如)한 합일을 지향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① 즉 인간과 자연은 상호 간에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② 따라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
③ 즉 자연이 인간의 세계에 흡수 통합됨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
④ 그러나 인간사를 연구하는 일은 자연사를 연구하는 일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0 비문학 - 비문학의 여러 이론 - 문맥적 의미

㉠ 앞과 뒤의 내용을 파악한다.
㉠ 앞: 자연 - 대립과 통일이 존재
㉠ 뒤: 마르크스의 진의 - 변증법적 지양과 합일의 지향
따라서 ㉠에는 '통일'이나 '합일'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답은 ②이다. ②는 '대립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위험하므로, 통일과 합일의 구도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답 ②

20 다음의 글 다음에 나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7. 서울특별시 9급

>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찜찜해서 심기가 홀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① 자연 속에서 무소유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
②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③ 종교적 의지를 통해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
④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0 문학 - 현대문학 - 수필 - 법정, '거꾸로 보기'

주어진 글을 요약해 보자.
㉠ 모로 돌아누워 산을 봄→산이 달리 보임
㉡ 가랑이 산이로 산을 봄→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노리를 하던 모습이 떠오름
이 두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④이다. 즉 똑바로 선 채 산을 바라볼 때 느끼지 못했거나 볼 수 없던 것들도 옆으로 보거나 거꾸로 보니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답 ④